

군불교 비전 21로 불국토 꿈꾼다

군불총 창립 10주년... “사병·군장성 등 군불자 관리 시스템 시급”

군불교 최대 신도조직인 국군불교총신도회(회장 박정기)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2월 26일 충남 계룡대에서 봉행된 군불총 10주년 기념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종 스님과 군종특별교구장 자광 스님을 비롯해 전군 군법사, 전·현직 불자 장성, 일반신도 등 사부대중 600여 명이 참석했다. 군불총은 2000년 2월 25일 육·해·공군 각 부대별로 독자 운영되던 불교신도회를 통합해 창립했다. 군불총 회원은 군의 정크랄크인 장성·장교 등 직업군인들로 구성돼 그동안 군포교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왔다.

타종교에 비해 뒤쳐진 포교현장에서 이를 극복하는 데는 불자 장성과 장교들의 역할이 지대했다. 군불총은 군종교구와 함께 호국영령제도법회, 영구대사 추모대제, 성지순례 등 군사적임을 중심으로 한 굵직한 군불교 행사를 이끄는 한편 전군 차원의 신도조직화를 위해 예비역 및 준·부사관 불자회, 장성 부인회인 성보회, 2007년 미주지역본부 창립하는 등 국내 신행공동체를 구축해왔다.

현재 현역 및 예비역 군불자 15만 명이 활동하고 있는 군불총은 ‘비전 21’의 명제 하에 불교진흥과 군정신전력 강화의 장기적 지향목표이 특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외 신행



군불총 창립 10주년 기념법회에서는 군장성·간부불자 180여 명을 비롯한 군불자 600여 명이 참석해 국운을 장려하며 활발한 신행활동을 다짐했다. 법회에서 포교원장 혜종 스님이 김홍배 소장(왼쪽)을 비롯한 군포교 진흥 공로자 6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다.

여건 변화에 맞는 신행조직과 활동 혁신으로 군불교의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비전21’은 크게 △호국불교 전통계승 △군종교구 연계활동 강화 △전군 신도조직 네트워크화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군불총의 미래는 장성불자가 주축이 돼 군불심을 이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함께 또 다른 과제를 낳는다.

범종단 차원의 군불교 지원여건 조성이 그것이다. 현재 군불총에 대한 중단 지원은 교구와의 연계 외에 군불총 후원을 위한 조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군불총은 2008년부터 월정현금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도 정착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군불총은 후원조직을 확충하기 위해 현역 군불자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예비역 간부들과 지역 군사청과 연계해 본부 및 지구회 단위 후원회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군불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군불자 정보화 및 신도관리 전산화가 필수다. 현재 군종교구는 장군불자 및 영관급불자에 집중 시 여의불

·화환 등을 전달하고 위관장교 및 부사관 등에는 수계첩 및 기념품을 지원하는 등 관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전·출입·전역을 연계한 군내 신도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한 군포교 전문가는 “전역 후 수계 사병을 관리하는 신도관리 시스템과 더불어 군장성 및 군장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산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며 “포교원 등과 연계해 지역사찰 실행과 맞물린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러 종교들이 총성 없는 포교전쟁을 치루고 있는 군포교. 육군훈련소 연무사 신축불사 등의 큰 과제를 안은 군포교 앞날에는 장성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호국불교의 전통 계승과 국가수호의 주역이라는 사명감 속에 전군을 이끄는 군불총, 군불총의 미래에 군포교가 달려 있다.

노덕현 기자

불교온라인쇼핑몰
HyunbulShop
사은품 증정
회원가 145,000
☎ 02)2004-8216

‘4대강 개발 대안 없나?’

불교환경연대·에코붓다 4일 심포지움

불교환경연대와 에코붓다는 3월 4일 프레스센터 20층에서 ‘4대강개발 대안 없는가’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불교·생명 분야 전문가들이 4대강 사업에의 건전한 비판과 생태적 개발 대안을 학술적으로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행사는 △불교적 관점(사제형 불학연구소 연구원) △생태적 관점(박

병상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소장) △사회문화적 관점(이도훈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정치경제적 관점(원영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의 4개 분과로 나눠 진행된다. 또, 에코붓다 유정길 공동대표는 이날 환경활동가들을 비롯한 참여자들에게 ‘생태적 발전을 위한 원칙과 권고’를 제안할 예정이다. (02)720-1654 박선주 기자

줌머인연대 기자회견 경찰 난입

재가연대 “공권력 위법 집행” 논평



2월 24일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방글라데시 정부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지만 경찰의 강제진입으로 무산됐다.

방글라데시 줌머인들의 참상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장을 경찰이 강제 해산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연행해 파문이 일고 있다.

재한줌머인연대와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불교·시민단체들은 2월 24일 서울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방글라데시 정부군의 줌머인 학살과 방화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찰은 기자회견이 불법집회라는 이유로 참석자들을 강제 해산하고 교단장정센터(대표 김원보) 손상훈 국장과 사회당 최광은 대표 등 5명

을 강제 연행했다. 같은날,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김동진)는 논평을 통해 “무참한 살인·방화가 자행되는 방글라데시에 항의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막은 경찰의 진압은 공권력의 위법한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재한줌머인연대에 따르면, 2월 19~20일, 방글라데시 정부군이 치타공 바가이차리 지역의 줌머인 마을을 습격해 최소 7명이 사망하고, 마을 10곳에서 사원과 교회 등 200여의 가옥이 파괴됐다. 박선주 기자

진흥원, BBS에 공개사과 촉구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 이하 진흥원)이 최근 BBS불교방송(이사장 영담)에 부당한 비난 공격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등에 대한 사과 요구 촉구 공문을 전달했다.

진흥원은 2월 25일 제136차 이사회에서 BBS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개사과 및 시정 조치를 촉구하

는 공문을 전달하기로 결의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BBS의 일부 직원들이 그동안 기자회견, 방송보도·기사 등을 통해 진흥원에 대한 폄해와 모독을 일삼아 왔다”며 “인격권과 명예훼손 행위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 시정 조치를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종교편향 해설 중단

제갈성렬씨 사과

2010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해설 중 종교편향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제갈성렬(40)씨가 2월 25일 사과와 함께 해설 위원직을 하차했다.

제갈성렬씨는 24일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1만m 경기에서 이승훈 선수의 금메달이 확정되자 “주님께서 허락해주셔서 금메달을 뒀다”고 말했다. 같은 날,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공통위원장 혜경·순안식, 이하 위원회)는 SBS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사과·징계를 요구했다. SBS는 “이번 발언은 올림픽 방송 기쁨의도와 정면 배치된다. 시청자들에게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혔다.

결국 제갈씨는 SBS를 통해 “중계방송 시 너무 흥분해 무심결에 종교적 발언을 했다”며 “자중하는 의미로 방송중계를 마칠 것이다”고 사퇴의 뜻을 전했다. 박선주 기자

“사형제 합헌 유감”

불교인권위 성명

사형제 합헌 결정에 불교계가 “살인이 합법화 될 수는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헌법재판소는 2월 25일 광주교도소 제기한 ‘사형제 위헌법률심판 제정’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불교인권위(위원장 진관)는 26일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살인을 정당화하고 있다. 사형제 폐지는 국가의 의무”라며 현재의 결정을 비판했다. 인권위는 “국가 모든 법과 통치제도는 지혜롭고 자비로우야 한다”며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형제 합헌은 1996년에 이은 두 번째 결정이다. 한국은 지난 14년 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돼 왔다. 박선주 기자



축비와 묵락

캠퍼스 포교 업그레이드 절실

대학 캠퍼스에 불이 찾아왔다. 학교 동아리며 각종 학원, 스터디 그룹 등 새내기들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캠퍼스 불 풍경의 하나다. 전국 160여 대학에서 활동 중인 불교학생회도 새내기 범우를 모으기 위해 치열한 포교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에서 올해를 캠퍼스 포교를 위해 내놓은 히든카드가 템플스테이다. 행사는 3월 26-28일 충주 석곡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열어 새내기들에게 법향을

전한다는 거룩한 뜻을 담고 있다. 아쉽게도 공간부족으로 참가인원은 100명으로 제한됐다. 게다가 다수의 동아리가 새내기 행사에는 “새나기는 몸만 오세요”라며 ‘공짜’가 대세지만 대불련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려면 새나기도 회비 4만원을 내야한다. 대불련 홍보를 위한 포교 기념품은 더욱 아쉽다. 지난해 핸드폰 고리 등을 주던 것이 다행히(?) 올해는 여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얼굴피지조절 기름종이와 접착식

메모지가 선정됐다. 각종 홍보품이 길거리에서도 넘쳐나는 지금, 대불련이 야심차게 마련한 홍보물품이 얼마나 많은 학생을 발심시킬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런 노파심을 더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수량도 넉넉하지는 않다는 점이다. 대불련이 마련한 물량은 전국 158개 지회에 100개씩이다. 학생의 저조한 참여율이 템플스테이 행사의 결실물이라하면 무료 쿠폰을 나눠줘도 좋을 것이다. 전국 등록 100여 템플스테이 사찰과

협이해 캠퍼스 포교기간을 정하고, 참가하는 대학생에게 관련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중단차원의 지원책이 절실하다.

‘술과 밥’으로 후배들을 끌어모으는 배고픈 시대는 지났다. 학생들의 변화만큼 그들의 요구 수준도 높음 요즘이다. 대불련이, 불교학생회를 포교의 블루오션으로 만들려면 불교계가 그들에게 먼저 푸른 꿈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귀의삼보하옵고
오는 6월 18일 대각교단에서 국제전수금강보살계를 봉행하고자 세계불교승가회 세계고승들을 초빙하여 재가불자들에게 금강보살계를 전계함으로 보리심을 증장시키고 한국불교를 널리 선양 불법홍포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國際傳授金剛菩薩戒壇阿闍梨尊證師團

국제전수금강보살계단아사리존증사단

名譽說戒師: 悟明大長老(永久名譽世界僧伽會會長)
오명대장로(영구명예세계승가회회장)
淨心大長老(世界華僧會會長)
정심대장로(세계화승회회장)
覺光大長老(香港佛教聯合會會長)
각광대장로(홍콩불교연합회회장)
說戒師: 道成大禪師(前海印寺住持)
도성대선사(전해인사주지)
萬翁大禪師(前海印寺住持)
만옹대선사(전해인사주지)
得戒阿闍梨: 淨良長老(中華民國佛教會會長)
정량장로(중화민국불교회회장)
羯磨阿闍梨: 覺醒大禪師(中國佛教副會長)
석각성대선사(중국불교부회장)
教授阿闍梨: 慧雄大禪師(世界佛教僧伽會秘書長)
혜웅대선사(세계불교승가회비서장)
授經阿闍梨: 妙淨大法師(濠洲佛教會會長)
묘정대법사(호주불교회회장)
依止阿闍梨: 明光大法師(台北佛教會會長)
명광대법사(대북불교회회장)
開堂 和尚: 寂默大和尚(大覺教團事務總長)
개당 和尚: 慧峰大和尚(地藏禪宗宗正)
尊證師: 能戒大和尚(慈福寺方丈)
능계대화상(오대산자복사방장)
慧禪大和尚(留雲禪寺方丈)
혜선대화상(유운선사방장)
大願大和尚(六祖寺方丈)
대원대화상(육조사방장)
대원대화상(육조사방장)
惠謙大和尚(圓光佛學院副院長)
혜겸대화상(원광불학원부원장)
長工大和尚(仁禪寺方丈)
장공대화상(인선사방장)
世澄大和尚(太平岩寺方丈)
세정대화상(태평암사방장)
宏正大和尚(法印寺方丈)
홍정대화상(법인사방장)
프라마하대僧正(마하차리롱대學副總長)
마다파디僧正(마하피리벤나사원학장)
보페까마테로대僧正(와다나라마야사원)
프라스유나비데스대승정(와타이달마라마사원)
解超大和尚(少林宗總務院長)
그 외 다수 국내외 고승대덕

佛戒律淵源(불계율원연)에 법호를 기재하오니 尊證師(존증사) 또는 引禮師父(인례사부) 하실 대덕큰스님들은 신청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3월 1일부터 ~ 3월 30일까지 신청마감 ▶

- ◆ 특별수계자는 가사, 장삼을 수여합니다.
- ◆ 수계 받을 불자들은 4월 30일까지 신청마감
- ◆ 각 종단 및 각 사찰별로 접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 일 시: 응화세존 3037년 남전열반 2554년 6월 18일(음 5월 7일) 오후 1시

■ 장 소: 대구시 엑스코 인터볼고호텔 국제연회장

■ 후 원: 세계불교승가회(대만본부)

■ 협 찬: 불교TV방송, 현대불교신문.

■ 동참불자: 약 5,000명

대각교단 국제전수금강보살계 봉행위원회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1122, 4F 대각교단
사무처: ☎ 053)325-5288, 팩스 325-4848, 010-6306-0082
開堂和尚 / 寂默 能仁和南, 培堂和尚 / 解峰 慧峰和南